



'더 브레이브' (2010)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2017)

# 원작 읽고 영화 보고 얘기 나누고

원작소설을 읽고 그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2개의 모임이 올해도 진행된다.

조대영 광주독립영화관 프로그래머가 진행하는 두 개의 소설영화동아리가 최근 2019년 상반기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20세기소설영화독본'과 '무소영' (무등도서관에서 소설과 영화를 만나다) 두 동아리는 원작소설을 2주 간에 걸쳐 읽고 모임 당일에 영화를 감상한 후 소설과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아리다.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오는 16일부터 격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진행된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이 모임은 회원들이 선정한 소설과 영화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올해 첫 모임은 지난 2011년 아카데미상 10개 부문 후보에 오른 에단·조엘 코엔 형제의 '더 브레이브' (2010)로 문을 연다. 서부소설의 대가 찰스 포터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1968년 존 웨인 주연의 영화 '진정한 용기'로 제작돼 흥행몰이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셰이프 오브 워터'로 오스카상 4관왕을 차지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직접 쓴 동명 소설을 만나고 아가사 크리스티가 1937년에 발표한 소설을 토대로 만든 영화 '나일 강의 죽음' (1978)과 함께 추리여행을 떠나기도

## 소설영화동아리 상반기 프로그램

'20세기소설영화독본' 16일부터 격주 수요일

'프라하의 봄'·'나일 강의 죽음'·'디센던트'

'무소영' 21일부터 격주 월요일 무등도서관

'버닝'·'불의 딸'·'경성지연'·'카르멘 존스'

한다.

또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1984)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예로틱한 욕망을 필립 카우프만이 절제된 시선으로 그려낸 '프라하의 봄' (1988)도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디센던트', '휴먼 스테인', '시핑 뉴스', '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 '협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레블루셔너리 로드' 등 총 12편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다.

오는 6월19일에는 독일 레마르크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서부전선 이상 없다' (1930)로 상반기 모임을 마무리한다. 자세한 일정은 인터넷 카페(cafe.naver.com/20

read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10-4660-5792.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무소영'은 오는 21일부터 격주 월요일 오후 2시~5시 무등도서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오는 6월까지 11편의 중단편소설을 읽은 뒤 영화를 보고 답론을 펼친다.

'무소영'에서는 한승원·장 아이링·무라카미 하루키 등 한·중·일 작가의 원작 소설이 눈에 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는 이를 원작으로 이창동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한국 첫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1차 후보에 오른 '버닝'과 함께 감상한다. 이노우에 아레노의 소설 '돌아올 수 없는 고향'은 이윤기 감독의 2011년 영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로 만나고, 샤머니즘을 통해 한국인의 근원적 심성을 그린 한승원의 단편 동명소설을 임권택이 연출한 '불의 딸' (1983)과 주윤발이 연출한 '경성지연' (장 아이링 원작)도 감상한다.

그리스 신화 '오이디푸스'를 중남미를 배경으로 옮긴 호르헤 알리 트리아나의 1996년작 동명 영화와 뮤지컬 영화 '카르멘 존스' (1955)도 영화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무등도서관 062-613-775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남대병원 '달항아리' 조문현 초대전

2월 1일까지 CNUH갤러리



'달항아리가 있는 풍경'

순백의 달항아리와 일상의 풍경이 어우러진 작품은 잔잔한 위로를 전한다. 화폭 전반에 배치된 달 항아리와 함께 산과 바다, 나무와 집,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해학적이기도 하다.

달항아리를 소재로 작업해온 한국화가 조문현 작가가 전남대학교 병원 (병원장 이상용) 1동 로비 CNUH갤러리에서 오는 2월 1일까지 초대전을 갖는다.

'달항아리가 있는 풍경'을 주제로 전시된 20여점의 작품은 푸른 산천과 백색의 동그런 달항아리의 안정감이 조화를 이뤄 자연의 생명감을 나타내고 있다.

조 작가는 "달항아리에는 선과 미의 아름다운 음률이 있으며, 맑고 깊은 맛이 담겨있다"며 "달항아리와 산수를 소재로 정신적인 중요요율과 사유의 세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작품 배경을 설명했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조 작가는 광주시 문화예술상 허백련특별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통과 형상' 회장 등을 맡고 있다. 문의 062-220-510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겨울 가곡 함께 불러요

11일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



우리 가곡을 시민과 함께 배우고 노래하는 '광주전남 우리가곡 부르기' 117번째 공연이 오는 11일 오후 7시 서구 농성동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에서 열린다.

새해 여는 첫 공연에서는 '겨울 노래'들을 부른다. '배우는 노래' 순서에서는 엄원웅의 시에 정영택(사진) 작곡가가 곡을 입힌 '눈 오는 밤에'를 함께 부른다.

또 동요 '겨울나무'와 가곡 '언덕에서', '옛이야기', '떠나는 배', '눈 내리는 날', '눈', '겨울강' 등을 참가자 모두 함께 부른다. 서옥주씨는 오세영 시인의 '1월'을 낭송한다. 테너 봉필수, 소프라노 김성춘·심숙호, 바리톤 곽광덕 등은 '사랑은 사랑이어서', '동백', '그대 사는 섬으로', '그런 밤중에' 등 신작 가곡을 무대에 올린다. 전석 초대. 문의 010-2694-459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詩·書·畵 어울린 휘호 시연

9일 금봉미술관 '여흥에 먹풀어~'... 16일부터 완성작 전시

기해년 새해를 맞아 필묵으로 상서로운 기운을 전하는 휘호 행사가 열린다.

금봉미술관(관장 한상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시(詩)서(書)화(畵)가 어우러진 '여흥에 먹풀어~' 전시를 개최한다.

현장에서 20여명의 작가들이 직접 휘호 시연 행사를 진행하고 배접 과정 등을 거쳐 1주일 후 완성 작품을 전시하는 계획이다. 관람객들은 작가들이 현장에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직접 보고, 이후 완성된 작품을 감상할 때 제작과정의 생생한 느낌을 되새기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휘호 행사는 9일(오후 1시30분~5시) 금봉미술관에서 열린다. 김국상·김민하·박광식·박문수·박행보·백현호·서재경·오명섭·윤영동·윤의중·이병오·이부재·이선

복·이준형·이흥홍·장찬홍·전명옥·정석훈·조창현·한상운·홍정호 작가 등 20여명의 참여자들은 개별, 또는 합작으로 다채로운 휘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곡자와 안주 등 음식을 함께 나누며 신년 덕담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며 일반 관람객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은 아름다운 자연에서 느낀 감흥을 예술로 풀어낸 선조들의 풍류를 함께 나누는 마음에서 마련했다"며 "시민들도 누구나 참여해 음식을 나누며 함께 즐길 수 있는 모두의 축제"라고 말했다.

완성작을 만날 수 있는 전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28까지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269-988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 금봉미술관에서 열린 휘호 시연 모습.

## 누군가를 만나서 더 외로울 때가 있다

박재연 'SORROW' 전 20일까지 화순 소아르 미술관

박재연 작가는 줄곧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 내용들을 도자 작품으로 풀어내 왔다.

박재연(조선헌 디자인학부 도자 전공 교수) 작가의 33번째 개인전이 오는 20일까지 화순 소아르 미술관에서 열린다. 초대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 박 작가는 'SORROW'를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들 속 사람들은 '날개'를 달고 있다. 삶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이겨내려는 마음의 표상인 '날개'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숙인 '나와 나'를 위한 위로이기도 하고, 움츠러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응원이기도 하다.

박 작가는 "어떨 때는 누군가를 만나서 더 외로울 때가 있다. 나는 이처럼 쓸쓸하고 그림고 비겁한 내면의 풍경을 꾸밈없는 몸짓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관람객들이 자기 내면의 고독을



'SORROW'

외면하지 않고 겨울을 보듯 오히려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61-371-858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 년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GOLD회원 모집

###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인 결제지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객 50% DC

### 연회비

구분	연회비(VAT포함)	비고
개인(1년)	₩ 2,800,000	본인 1인
증정품		· 객실 무료이용권 2매 · 레스토랑 이용권 1매 · 휘트니스 이용권 4매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